

大都市 公園綠地의 役割에 관한 研究(I)

—大邱市民의 公園綠地의 價值 分析을 中心으로—

金秀峰* · 金龍洙**

* 영국 세필드대학교 조경학과

** 慶北大學校 造景學科

The Role of Green Space in Metropolitan —Region with Practical Reference to Taegu City, Korea—

Kim, Soo-Bong* · Kim, Yong-Soo**

*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 University of Sheffield

**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Every assumptions on the importance of urban green space were highly valued by urban and landscape professionals. This paper, therefore, investigated residents' values on urban green space as a first stage study on the role of green space in metropolitan region. Case study area was Taegu city. Questionnaire was main tool for the investigation. This study discussed operational definition of green space and the appropriateness of the hierarchy of green space in order to examine the changing role of urban green space in terms of people's values on green space. The investigation proposed that the people's values were quit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professionals' and suggested the need of new method which was more suitable to investigate people's emotions and values on the green space in the city.

I. 序 論

公園綠地는 우리가 都市의 環境을 表現할 때 흔히 쓰는 常套語로서 그 定義는 個人이나 職種에 따라 多樣하다. 公園綠地는 오픈스페이스의 代用語로 쓰여져 왔으며, 오픈스페이스도 지금까지 公園綠地 즉, green space라는 用語를 代身하여 뚜렷한 區分 없이 使用되어져 온 것이 事實이다.

1960年代 부터 都市 디자이너들 예를들면, Jacobs(1961)¹⁴⁾, Tarkel(1963)²⁵⁾, Tunnard & Pushkarev(1963)²⁶⁾, Little(1968)¹⁷⁾ 그리고 Platt

(1972)²³⁾등은 오픈스페이스를 都市形態를 위한 機能의 觀點에서 定義 해왔으며, Eckbo(1969)⁶⁾, Balmer(1972)²⁾, Morris(1979)²¹⁾, Gold(1980)¹²⁾, Garabet(1982)¹⁰⁾ 그리고 van Rooden(1983)²⁷⁾등은 오픈스페이스에 대해 도시민의 레저와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준비물로서 그 촛점을 맞추고 있다. Francis(1987)⁸⁾, Leonard(1979), Lynch(1981)¹⁸⁾ 그리고 Cooper Marcus & Francis(1990)⁴⁾등 몇몇 學者들은 오픈스페이스의 接近性과 公共財의 觀點에서 오픈스페이스를 定義 했다. 한편, 公園綠地는 오픈스페이스가 都市內의 自然環境의 一部를 指

稱할 때 흔히 쓰이는 用語처럼 쓰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公園綠地에 대한 論議는 環境心理學 이나 環境美學 그리고 都市生態學 分野의 여러학자들 즉, Wohlwill(1983)³⁰⁾, Nohl(1985)²²⁾, Michert (1983)²¹⁾, Sprin(1984)²⁴⁾, Hough(1989)¹²⁾, Laurie (1979)¹⁵⁾, Gilbert(1989)¹¹⁾ 그리고 Beer(1990)³⁾ 등에 의해서 主導되었다.

위에서 지금까지 言及한 公園綠地와 오픈스페이스의 定義는 모두 專門家들의 觀點에서 그들의 問題를 解決하기 위한 것에 그 촛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은 公園綠地와 오픈스페이스 概念의 複合性과 多樣性에서 起因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公園綠地와 오픈스페이스의 多樣한 定義를 도시내의 造景計劃의 專門性 및 特殊性과 關聯하여 考慮해 볼 때 오픈스페이스보다는 公園綠地가 더욱 適切한 用語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修行을 위해 公園綠地를 “都市計劃法에 規定된 都市計劃施設로서 公園 혹은 綠地라기 보다는 좀더 넓은 意味로서 公園 뿐만 아니라 河川, 山林, 農耕地까지를 包含하는 ‘都市 속의 自然’으로서 레크리에이션, 奢美, 生產, 保護, 裝飾, 心理的 象徵 그리고 保養등을 主目的으로하며, 현재 植物이 자라고 있고 앞으로 植物이 자랄 수 있는 土壤을 가진 都市 地域內의 建物로 채워져 있지 않는 모든 土地와 물”로서 定義한다.

한편, Laurie(1985)¹⁶⁾는 公園綠地計劃에 있어서 理論과 哲學의 부족함을 批判하면서 公園綠地의 社會的 概念과 住民들이 公園綠地에 대해 무엇을 要求하고 있는지에 注目할 것을 強調했다. 都市生活에 대한 質的 側面에 있어서의 都市民의 增加하는 要求程度는 都市內의 綠地環境에 대한 關心을高潮 시키고 있다. 이것은 國內의 進一步된 民主化의 한 斷面인 地方自治制의 새로운 出發과 더불어 높아진 地域社會의 環境에 대한 關心과 우리經濟의 安定으로 보다 많아진 餘暇時間, 所得의 增大, 自動車所有의 急激한 증가 그리고 높은 教育水準에서 起因한 것으로 생각된다. Whitaker 와 Brown (1971)²⁸⁾은 대부분의 도시민들은 壽命의 延長, 自動車所有와 餘暇時間이 증가함에 따라 公共의 公園綠地에 대한 要求가 增加한다고 主張했다.

現代社會에 있어서 公園綠地에 대한 도시민의 要求는 多樣할 것이며 測定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

를 것으로 생각 된다. 왜냐하면 우리사회를 形成하는 다양한 構成員들은 그들 각자가 公園綠地에 대해서 多樣한 價值와 公園綠地를 經驗함에 있어서도 각기 서로 다른 要求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Foresta(1980)⁷⁾는 公園綠地 多元論이 公園綠地와 關聯된 思想 가운데서 가장 支配的인思想이라고 主張했다. 그는 이러한 公園綠地 多元論의 核心은 이 社會를 構成하는 構成員들의 社會階層, 教育水準, 所得水準, 그리고 居住環境등에 따라서 公園綠地에 대한 價值를 서로 다르게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한 이러한 異質的인 사회의 政策決定者들에게 公園綠地에 대한 도시민의 多樣한 要求와 需要를 提示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公園綠地 多元論은 公園綠地政策의 卽興性 즉, 주먹구구식 계획을 制御할 수 있다고 提言했다.

한편, 런던의 公園綠地計劃은 1969년 런던 開發計劃에 의해 이루어 졌으며 이 계획은 순전히 位階性에 그 基準을 두었다. 이 位階性은 公園綠地의 面積이 增加함에 따라, 집으로부터의 距離가 멀어짐에 따라 公園綠地가 다양한 機能을 遂行할 수 있다고 믿는 機能爲主의 基準이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位階性은 같은 條件을 가진 모든 公園綠地는 이용자들에게 같은 質의 레크리에이션 經驗을 提供하며, 커뮤니티의 모든 地域에서 동등한 接近 즉 利用의 機會를 提供한다는 것을前提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制限된 位階性의 基準에 立脚하여 公園綠地政策이 施行되고 있으며, 이러한 位階性에 基礎를 둔 公園綠地 政策이 과연 都市의 公園綠地를 供給함에 있어서 과연 최고의 解決策인지에 대해서는 位階性에 대한 具體的인 研究가 아직 꺽 이루어 지지않았기 때문에 이 基準이 公園綠地計劃에 있어서 最善의 指針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듯 하다.

많은 環境論者들은 既存의 公園綠地政策의 틀에 박힌듯한 位階性에 基準을 둔 舊態依然한 接近 方法에 대해 批判을 가하고 있다. 그들은 都市 속의 自然으로서의 公園綠地 즉, 公共의 公園綠地가 도시민들이 自然과 接할 수 있는 場所로서 그들로 하여금 都市生態界에 대해 배울수 있는 機會를 提供함과 아울러 一連의 個人的, 社會文化的인 惠澤을 얻을 수 있다고 主張했다. 이러한 都市 속의 自然思想은 Laurie교수(1979)의 ‘Nature in the Cities’¹⁵⁾에 잘 要約 되어 있으며, 그 形式은 McHarg교수

(1971)의 初期著作인 'Design with Nature'¹⁷⁾를 따르고 있다. 그 두 著作은 共通的으로 土地利用計劃은 반드시 生態學의 基準과 自然資源의 形態에 의해 決定되어져야함을 強調했다. 이와는 달리 公園綠地政策 擔當官들은 公共의 公園綠地가 도시민을 위한 갖가지 레크리에이션 機能을 반드시 遂行해야 함을 強調하면서(GLC, 1986)¹⁸⁾ 公園綠地를 도시의 '自然 留保地'로 주장하는 環境論者들의 主張에는 심한 拒否感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Winning(1986)¹⁹⁾은 政策擔當者들이 環境論者들의 주장에 拒否感을 나타내는 것은 環境論者들의 主張이 그들의 專門領域에 대한 深刻한挑戰으로 받아들인結果이기에 그리 놀랄일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都市의 公園綠地가 現 社會의 要求를 反影하고 受容해야 한다고 볼 때, 環境論者나 政策擔當者 어느 누구도 現在의 公園綠地에 대한 都市民의 價值觀이 變化하고 있는 公園綠地의 役割과 서로一致하고 있는지를 究明하기위한持續的인 努力은 찾아 보기가 힘든 것 같다. 이에 본 研究는 大都市 公園綠地 計劃의 새로운 方法模索을 위한 基礎研究로서 먼저 大都市 居住民의 立場에서 본 現在 公園綠地計劃에 있어서 基準이 되고 있는 位階性의 妥當性 與否에 대하여 考察하고, 이어 大都市 居住民의 公園綠地에 대한 價值를 公園綠地 多元論의 觀點에서 살펴본 후 이것을 土臺로 大都市 公園綠地가 都市民의 日常生活에서 과연 어떠한 役割을遂行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分析하고 考察해 보기로 한다.

II. 研究範圍 및 方法

本 研究는 大都市 居住民을 對象으로 에 대한 價值를 分析하여 變化하는 大都市 公園綠地의 役割을 再照明하고자 함에 그 目的이 있다.

研究對象地域으로는 Doxiadis(1975)²⁰⁾가 提示한 都市化 15段階 중 그 열번째 段階인 大都市의 公園綠地를 選定하였다. 大邱市를 選定한 것은 첫째, 독시아디스가 主張한 大都市의 適定人口가 200만명임을 考慮 해볼 때 大邱市(1989년 현재 224만명; 서울1029만, 부산 377만, 인천 164만, 광주 112만, 대전 102만)가 그 基準에 가장 適合 하다고 判斷 되

었기 때문이며, 둘째, 行政區域上 大邱市를 이루는 7개 區의 地域的 性格이 뚜렷하며, 嶺南地方의 中心都市로서 周邊人口의 集中化로 因한 居住民構造의 多樣性으로 公園綠地 價值의 多元論을 調査하는데 有利 하다고 判斷되었으며, 셋째, 地形學的으로 都市全體에 걸쳐 公園綠地의 要素인 公園, 河川, 山林, 어린이 놀이터, 學校 運動場, 大學 캠퍼스, 街路樹, 吳, 遊園地, 山, 골프장 등이 多樣하게 散在하며 넷째, 直接調查에 의한 一次資料(primary data)의 收集이 容易 하다고 判斷 되었기 때문이며, 마지막으로 個人的인 研究의 限界를 벗어 나지 않기 위함에서 였다.

研究는 주로 文獻調查와 竝行하여 公園綠地에 대한 都市 居住民의 價值(values)를 밝혀내기 위해서一般的으로 널리쓰이는 設問紙에 基礎한 社會調查方法을 채택했다. 설문은 크게 公園綠地의 概念 및 利用 그리고 政策에 관한 內容과 個人의 性別, 居住地, 年齡, 學歷, 所得, 住宅 등 人口統計學의 內容으로 구성하였다. 基礎 設問調查는 6월 1일부터 3일 까지 研究者가 直接 大學生, 직장인 및 家口主 47명을 對象으로 設問의 構成順序 와 語彙의 適合度 그리고 質問의 難易度 등을 알아 보기위해 實施하였다. 基礎調查를 通해 補完된 本 設問調查는 1991년 6월 5일부터 7월 11일 까지 實施했다. 調査對象者は 1991년 6월 現在 大邱市에 居住하며, 現實에 대한 正確한 判斷 能力이 있다고 생각되는 高等學校 3學年 이상 만 65세 미만의 男·女를 對象으로 하였다.

設問紙 配布는 學生 生活記錄카드의 住所를 根據로 하여 大邱市 全域에 걸쳐 고르게 居住하고 있는 慶北大學校 造景學科 在學生 110명을 調査員으로 選定하였다. 設問의 趣旨 및 內容을 熟知시킨 후 調査員 1인당 4매씩 총 440매를 學生들이 居住하는 地域의 住民을 對象으로 配布하여 241매(회수율 54%), 專門家 集團의 調査를 위해 造景學科 3·4 學年 男學生 18명과 4學年 女學生 24명을 대상으로 42매를 配付하여 25매(회수율 59%)를 回收 하였다. 이 方法은 標本을 大邱市 全地域에 고르게 分布시키고 設問과 관련 있는 專攻學生들의 이웃이나 父母 또는 親舊를 對象으로 함으로써 誠意 있는 應答을 얻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回收率이 低調했던 主 理由는 흔히 既成世代에서 共通의 發見되는

設問調查에 대한 無條件의拒否感과 非協助와 大邱市 이외의 他 地域 出身 調查員들(43 / 110, 39%)이 現 居住地에 父母나 親知의 不在와 地域의 異質感으로 因하여 發生할 수 있는 調查에 대한 非積極性 때문으로 생각된다. 한편, 青少年 層의 調查를 위해서 南山 女子高等學校 3학년 1개반 54명과 啓聖 高等學校 3학년 1개반의 45명의 學生을 對象으로 研究者가 直接 訪問調查하여 99枚를 調查가 끝난 후 그 자리에서 回收(회수율 100%)하였고, 居住民 年齡層의 分布를 고르게 하기 위해 大學生의 學父母보다는 年齡層이 낮다고 생각되는 慶北大學校 師範大學 附屬中學校 1학년 2개반과 聖和女子中學校 2학년 1개반 學父母를 對象으로 1개반당 각 60매 모두 180매를 配付하여 回收한 157매(회수율 87%) 등 모두 522매(總回收率 68%)의 設問紙를 回收하였다.

青少年層의 調査를 除外하고는 配付후 3-4일 후에 回收하는 方式을 택했으며, 522매의 設問紙 중 不誠實한 應答을 했다고 判斷되는 17매를 除外한 505매를 分析에 使用하였고, 分析은 公園綠地에 대한 都市民 全體의 意見과 社會階層, 教育水準 그리고 所得水準에 따른 公園綠地 價值의 多元論을 究明하기 위하여 頻度分析과 카이 스퀘어 檢定을 주로 利用하여 分析하였다, spss / pc⁺ 프로그램을 주로 利用하였다.

III. 結果 및 考察

1. 公園綠地에 대한 選好度

都市民들은 평소 어떤 種類의 公園綠地에 關心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公園綠地政策의 基本方向을 提示하기 위해 大邱市에 散在하는 28種類의 公園綠地에 대하여 그들이 좋아하는 것 3가지를選擇케 하여 나타난 結果는 [表 1]과 같다. 大邱市民들은 28종의 公園綠地에 대해 모두 한번 이상 關心을 나타내어 現行 法制上의 形式的인 公園綠地 이외의 非公式的인 公園綠地도 都市民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比重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都市計劃法上의 도시계획시설인 도시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이외의 동네빈터, 소 운동공원,

[表 1] 公園綠地 選好 頻度

N=1507, 단위 : 회, () : %

區分	頻度	區分	頻度
주택 정원	179(11.8)	사찰	47(3.1)
캠퍼스	150(10.0)	아파트 정원	46(3.1)
도시자연공원	110(7.3)	주말농장	45(3.0)
산	98(6.5)	수변공원	34(2.3)
약수터	89(5.9)	건물주위 조경공간	34(2.3)
도심 소공원	84(5.6)	하천주변	33(2.2)
가로수	72(4.8)	옥상정원	22(1.5)
도시공원	70(4.6)	못	19(1.3)
가로공원	60(4.0)	학교 운동장	18(1.0)
유원지	59(3.9)	중앙 분리대	13(0.9)
소 운동공원	57(3.8)	논, 밭	9(0.6)
동네 빈터	52(3.5)	골프연습장	5(0.3)
어린이 놀이터	48(3.2)	골프장	4(0.3)
동네 야산	48(3.2)	묘지공원	1(0.0)
		기타	1(0.0)

약수터, 유원지 水邊公園, 건물주위의 造景空間, 사찰, 어린이 놀이터, 동네야산, 街路公園, 街路樹, 週末農場, 山 그리고 河川周邊 등의 非公式的인 公園綠地에 더 폭넓은 選好度를 나타내고 있어 현 都市計劃法上에 입각한 公園綠地政策의 재 檢討가 要求된다 하겠다. 다시 말하면 都市民들은 法制上의 面積, 利用圈 혹은 施設에 의해 設置되어 都市民의 日常生活과 乖離된 都市計劃施設로서의 華麗한 公園綠地보다는 그들의 日常生活의 한부분으로서 素朴하지만 그들의 居住地附近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公園綠地에 더 많은 關心을 가지고 있음을 政策立案者들은 念頭에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上位의 公園綠地로서 家庭庭園, 캠퍼스, 都市自然公園, 山 그리고 약수터 등을, 下位 公園綠地로서 墓地公園, 골프장, 골프연습장, 논밭 그리고 分離帶 등을 나타내었다. 都市民들이 家庭庭園을 가장 선호하는 것은 庭園은 都市生活에 바쁜 現代人들이 가장 쉽고 가까운 곳에서 自然과 接触으로 얻을 수 있는 心理的인 安定感, 季節의 變化, 家族간의 紐帶 등을 느끼게 하는 場所로서의 役割 뿐만 아니라, 過去支配層의 專

有物 처럼 인식되었던 庭園文化 즉, 自然을 耕作함으로 얻을 수 있는 價值의 創出과 增大를 都市民 모두가 누리고 싶어하는 心理的慾望에서 起因 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대구시 인근의 山을 中心으로 하여 比較的市外廓地에 위치한 都市自然公園이나 약수터 등을 도시민들이 選好하고 있는 것은 自動車需要의急速한 增加에 따른 接近手段의 便利함, 1960년대 이후 工業化와 都市化의 餘波에 의한 急激한 社會變動으로 自由時間의 增加와 所得의 增大, 教育機會의 增大, 都市의 核家族化로 인한 레저형태의 變化 그리고 市郊外에 위치한 公園綠地의 多樣性과 特殊性을 즐기기 위해 都市의 外廓으로 향하고자 하는 都市民의 心理的慾求의 變化와 특히 약수터의 경우 一般市民들의 아침 運動場所 또는 커뮤니티의 場으로서의 役割과 아울러 最近의 深刻한 社會問題로 擡頭된 食水污染事件때문으로 생각된다. 墓地公園과 골프장등이 下位의 選好를 받고 있는 것은 墓地公園의 경우 墓地를 꺼려하는 사회적인 因習과 墓地公園 자체가 가지는 죽음이라는 場所의 이미지 그리고 利用과 接近의 特殊性때문으로 생각된다.

골프장의 경우에는 現在 社會全般에 깔린 골프장建設과 이에따른 여러가지 雜音과 副作用 그리고 골프라는 게임자체가 가지는 이용의 制限性과 特殊性으로 인한 위화감과 비대중성 즉, 극히 한정된 사회일부 혹은 富裕階層 만이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서 현 우리사회가 안고있는 階層간 葛藤을 더욱 深化시키고 있는 하나의 要因으로 作用하고 있는 골프장에 대한 一般大衆의 全般的이고도 否定의見解를 그대로 反影하고 있는 듯하다.

2. 公園綠地의 開發 優先順位

현 都市計劃法에 의거 公園綠地의 機能에 基礎한 公園綠地政策의 矛盾點 및 그 改善策을 提示하기 위하여 현재 擴充·開發되기를 원하고 있는 公園綠地를 28종류의 公園綠地에 대하여 3가지를 選擇하게 한結果는 [表 2]와 같다.

大邱市民은 自然公園, 都心小公園, 都市公園, 동네빈터 그리고 小運動公園의 순서로 公園綠地의 開發 優先順位를 들고있다. 都市自然公園이 開發 優先順位에서 가장 앞선 것은 都市民들이 都市公園

[表 2] 公園綠地 開發 優先順位

N=1506, 단위 : 회, (%) : %

區分	頻度	區分	頻度
도시자연공원	151(10.0)	산	47(3.0)
도심 소공원	144(9.0)	아파트정원	34(2.0)
도시공원	121(8.0)	학교운동장	31(2.0)
동네 빈터	120(8.0)	캠퍼스	31(2.0)
소 운동공원	115(7.0)	수변공원	25(1.0)
어린이 놀이터	92(6.0)	중앙분리대	22(1.0)
가로공원	75(5.0)	주말농장	16(1.0)
가로수	75(5.0)	옥상정원	13(1.0)
하천주변	73(5.0)	못	8(0.0)
주택정원	70(5.0)	사찰	5(0.0)
건물주위	67(4.0)	골프연습장	4(0.0)
조경공간	62(4.0)	골프장	1(0.0)
약수터	61(4.0)	논, 밭	1(0.0)
유원지	56(3.0)	묘지공원	0(0.0)
동네야산	48(3.0)	기타	1(0.0)

의 複雜함과 利用과 行動의 制約을 피해 都市生活에서 접하기 어려운 自然을 비교적 가까이에서 느끼며 季節의 變化를 觀照하고, 조용히 앉아서 낙엽, 비, 바람 그리고 해가 뜨고 지는것 등을 默想하고 아름다운 景致를 感想하는 등 世上事로부터 벗어나 解放感을 느끼고 싶어하는 人間本然의 慾求에 그 原因이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1980년 부터 시작된 全國土公園化運動의 一環으로 大邱市에서도 10개년 계획으로 푸른대구가꾸기사업을 遂行하였다. 그러나 大邱市의 近視眼의 도시 공원녹지정책으로 인해 80년대 이후 大邱都心에서 시외곽지로 이전하는 학교나 公共施設의 敷地는 고층아파트가建設 되었고 都市民을 위한 도심소공원이나 도시 공원 부지로 確保한 곳은 한 곳도 없었으며, 공원부지로 指定된 곳도 豫算不足과 當局의 無關心 등으로 開發되지 않고 放置 되어있는 實情이다. 이러한 도시공원과 도심소공원에 대한 대구시의 현 實情과 시 당국의 관심부족및 政策 不在 등은 도시민의 도심소공원과 도시공원에 대한 開發熱望이 잘 代辯하고 있는 것 같다. 다른 한편으로 도시민들은 동네빈터, 소운동공원, 가로수, 학교운동장, 가로공원, 어

린이 놀이터, 河川周邊 등과 같은 非公式的이고 집에서 쉽게 도달할 수 있으며 정책당국의 意志만 있다면 굳이 비싼 地價를 支拂하지 않고도 쉽게 공원녹지의 敷地로 확보할 수 있는 곳의 개발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공원녹지가 公共財로서의 役割을 遂行하기 위해서는 즉 도시민 모두가 地域이나 社會階層등에 상관없이 利用의 機會를 나누어 가져야 한다고 생각되며 이를 위해서는 공원녹지 정책시 공원녹지 自體의 機能性이나 대규모의面積 보다는 비록 소규모라 하더라도 도시속의 自然으로서 뿐만 아니라 공원녹지의 주 이용자인 도시민들이 계층적, 행위적인 障壁이 없이 日常을 통한 만남의 場으로서의 役割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접근성의 문제를 반드시 考慮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公園綠地政策立案者들은 Alexander (1977)¹¹⁾의 말을 깊이 새겨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公園綠地의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서는 수 많은 公園綠地를 아낌없이 都市곳곳에 널리 分散시켜서 도시내의 어느 住宅地나 作業場에서도 3分 이내에 到達 할 수 있어야 한다".

3. 公園綠地의 配置

大邱市에서 새로이 開發·擴充할 公園綠地의 配置에 대한 基礎資料를 收集하고 公園綠地政策의 基本方向을 提示하기 위하여 집으로 부터의 距離, 規模, 適切한 用地 그리고 새로운 稅金의 新設에 대한 設問에 應答한 結果는 [表 3]과 같다.

大邱市民은 遠距離에 위치한 大規模의 公園綠地 보다는 집에서 가깝고 利用하기에 便利한 小規模의 公園綠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금까지의 位階性에 基礎한 公園綠地計劃의 협점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이 位階性을 기준으로 하는 공원녹지정책은 公園綠地의 面積이 增加함에 따라, 집으로 부터의 距離가 멀어 집에 따라 公園綠地가 다양한 機能을 發揮할 수 있으며 大規模의 공원녹지만이 가장 多樣한 機能을遂行할 수 있다고 믿는 機能為主의 基準이다. 따라서 이 位階性은 같은 條件을 가진 모든 公園綠地는 모든 도시민에게 같은 質의 레크리에이션의 機會를 提供하며, 커뮤니티의 모든 地域에서 同等하게 公園綠地를 利用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前提로 한다.

[表 3] 公園綠地 配置에 대한 意見

단위: 회, () : %

총 응답자수	內 容	頻 度
집에서의 거리 (503)	원 거 리 근 거 리 기 타	14(2.8) 479(95.2) 10(2.0)
규 모 (478)	대 규 모 소 규 모 기 타	113(23.6) 349(69.1) 16(3.3)
용 지 (500)	그린벨트 시변두리지역 주택가 빙터 학교, 공공건물 이전한 곳 기 타	118(23.6) 80(16.0) 148(29.6) 147(29.4) 7(1.4)
세금신설 (499)	찬 성 반 대 모르겠다	164(32.9) 202(40.5) 133(26.6)

그러나 都市民들은 그들의 日常生活的 터전에서 公園綠地를 접할 수 있기를 바라며, 敷地買入과 施設投資등에 많은 豫算을 所要하는 大規模의 公園綠地 보다는 住宅街 빙터와 같은 작은 규모의 空地나 學校나 公共建物이 移轉한 場所에 公園綠地가 設置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아이러니칼하게도 前章의 公園綠地 開發우선 순위에서는 市外에 위치하여 대규모의 면적인 自然公園을 최우선 순위로 要求하고 있어 公園綠地의 開發과 配置에 있어 矛盾되는 일면을 發見할 수 있다.

또한, 大邱市民은 公園綠地의 擴充 및 開發의 財源 造成을 위한 稅金의 新設에 대해서는 拒否感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都市民들이 그들의 周圍에서 쉽게 自然公園과 같은 雾靄氣와 要件을 갖춘 公園綠地를 접하고 싶어하는 心理的 慾求와 地方自治制의 재출발 以前에 서울을 中心으로 하는 中央為主의 投資와 開發에 厥症을 느낀 특히 같은 稅金을 내고서도 모든 分野의 惠澤에 疎外된 地方民의 現實的인 意思를 잘 反影하고 있는 것 같으며 都市民의 보다 높아진 良質의 都市環境에 대한 그들의 關心度와 期待值을 잘 나타내고 있다 하겠다.

따라서 公園綠地政策家들은 公園綠地의 機能性立場에서 보다는 住民이 親近感을 가지고 쉽게 아무 拒否感 없이 利用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都市

속의 自然으로서의 役割 뿐만 아니라 公園綠地가 커뮤니티의 場으로서 또한 公共財로서의 役割을 다 할 수 있게끔 地域의 住民의 意味를 考慮한 立場에서 公園綠地政策을樹立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 公園綠地의 意味

造景. 都市計劃 分野의 專門家 立場에서가 아닌 都市의 主體인 居住民의 觀點에서 公園綠地에 대한 意味를 分析하기 위하여 調査 對象者의 居住地 附近이나 大邱市 全域을 對象으로 생각나는 公園綠地의 이름을 직접 쓰게 하여 나타난 頻度數를 集計한 結果는 [表 4]와 같다.

大邱市民은 앞산, 頭流, 達成, 망우 그리고 中央公園 등과 같은 都市 計劃施設로서 市當局에 의해 管理·運營되는 市民들에게 비교적 알려진 곳 뿐만 아니라, 慶北大 캠퍼스, 성당못, 앞산 약수터, 동화사 그리고 널리 알려진 곳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그들의 日常生活에서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으며 親近感을 느끼는 각종 비정형적인 公園綠地 예를 들면 중리여중, 매지골약수터, 갓바위, 방천, 건물 주변의 조경녹지, 범어 뒷산, 도청옆 잔디밭, 대봉교 부근, 건들바위, 오봉산 등도 公園綠地의 중요한 요소로서 認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都市民은 그들의 日常生活에서 比較的 親近感을 느끼거나 親熟한 곳을 그들의 레저와 레크리에이션活動을 위해 찾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空間의 位階性에 의한 公園綠地 計劃은 都市民의 公園 都市民의 公園綠地에 대한 多樣한 需要를 充足 시켜주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公園綠地 政策家들은 公園綠地의 專門家인 都市·造景 計劃家들의 다양한 意見 뿐만 아니라 公園綠地에 대하여 그 利用의 主體인 도시민이 그들의 日常生活에서 어떻게 생각하며, 무엇을 느끼고 있는 지에 대한 意見의 收斂을 竝行할 때야 만이 公園綠地가 都市民을 위해 그 役割을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大邱市 公園綠地 政策은 比較的 自然의 要素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앞산공원, 頭流公園 그리고 八公山을 중심으로하는 八公山 自然公園 등과 같이 全市民을 對象으로 하는 公園綠地의 開發과 더불어 學校, 藥水터, 新川주변,

[表 4] 公園綠地의 意味語

種 類	回 數(%)
앞산공원	244(17.8)
두류공원	189(13.8)
수성못	187(13.6)
팔공산	152(11.1)
달성공원	123(9.0)
망우공원	89(6.5)
중앙공원	67(4.9)
경북대캠퍼스	23(1.7)
공원	20(1.5)
동촌유원지	19(1.4)
어린이대공원	18(1.3)
성당못	18(1.3)
앞산약수터	17(1.2)
냉천자연농원	15(1.1)
약수터	13(0.9)
앞산십신수련장	11(0.8)
산	11(0.8)
화원유원지	10(0.7)
신천변공원	10(0.7)
배자못	8(0.6)
동화사	8(0.6)
대덕산	8(0.6)
기타 :	109(8.0)
뒷산1, 학교2, 유원지2, 중앙분리대3, 중리여중1, 동네주변빈터1, 영남대학1, 육수약수터1, 하천주변2, 매지골약수터1, 산격시민 체육공원1, 과계사3, 동인공원1, 아파트녹지4, 주택정원1, 가창댐1, 용연사2, 대학교3, 갓바위4, 도청1, 다룡산1, 가산2, 와룡산1, 부인사1, 방천2, 건물주변의조경녹지시설1, 도로1, 범어뒷산2, 대덕공원1, 아파트돌이터1, 배자못1, 신암공원1, 평강약수터2, 도청옆잔디밭1, 경북대장미원1, 도청앞강둑1, 마이산1, 안국사1, 팔공산순환도로1, 동화천지역1, 신암선열공원5, 가산산성1, 향교2, 대봉교부근2, 동아쇼핑소공원1, 건들바위2, 골프장1, 놀이터1, 소공원1, 사찰1, 범어체육공원1, 단산못3, 용두골약수터4, 안일사1, 수도산5, 범물못1, 가창약수터2, 계명대2, 침산공원1, 연암공원1, 황금동공원예정지1, 용두골2, 오봉산5, 고산골약수터3,	

어린이 놀이터, 동네 野山이나 빈터 등과 같이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地域의 中心이 되는 곳, 작은 규모이지만 地域 住民의 利用이 쉽고, 쉽게 公園綠地의

開發을 위한 用地를 確保 할 수 있는 大邱市의 곳곳에 散在하는 公園綠地로 하여금 都市속의 自然 또는 市民을 위한 레크리에이션의 場으로서 뿐만 아니라 또한 地域住民間의 紐帶感과 所屬感을 높이고 地域에 대한 自負心을 지역주민들이 갖게 함으로서 窮極의으로 都市民의 바람직한 삶을 위한 共同體의 場으로서의 役割을 할 수 있게끔 公園綠地 政策을 誘導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5. 公園綠地의 價值

本文에서의 公園綠地의 價值(values)란 社會構成員 즉 都市에서의 居住民이 指向하는 公園綠地에 대한 理想, 價值, 行動樣式를 말한다. 都市民의 公園綠地에 대한 價值는 時代와 社會가 變化함에 따라 變化한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價值의 變化와 社會의 變化와는 密接한 相關關係를 맺어가며 進行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變化하고 있는 公園綠地에 대한 도시민의 多樣한 價值를 把握하는 것은 大邱市의 現 實情에 適合한 公園綠地 政策의 資料를 提示하고 大都市에 存在하는 公園綠地가 都市民의 日常生活에서 어떠한 役割을 遂行하고 있는지를 糾明하기 위해서 意味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表 5, 6, 7]은 公園綠地에 대한 價值-즉, 自然景致를 즐기는 것과 같이 自然과 직접 접하면서 自然과 同化되고 싶어 公園綠地를 利用하는 것, 맑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 解放感을 느끼기 위해, 조용한 곳을 찾아

서 등과 같이 複雜한 社會生活에서 벗어나고픈 人間의 心理的인 慾望에서 公園綠地를 利用하는 것 그리고 놀이나 運動, 親交 그리고 어린이교육 등과 같이 레크리에이션 또는 社會的 目的으로 公園綠地를 利用하는 것-를 大邱市民의 職業, 居住地域 그리고 教育水準別로 分析한 것이다.

職業에 따라 公園綠地의 價值는 差異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전체적으로 도시민의 心理的인 慾求에 의해 公園綠地를 가장 많이 利用하였고 레크리에이션이나 社會的인 목적을 위한 것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精神·肉體 労動者들은 맑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 주부들은 自然景致를 즐기기 위해 그리고 학생층은 解放感을 느끼기 위해 주로 공원녹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職場을 가진 既成世代와 학생층들은 도시내의 煩雜하고 바쁜 職場生活과 學校生活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들의 심리적 慾求에서 起因하며, 主婦들은 일상의 家事生活에서 벗어나 公園綠地에서 자연과 접하고 싶어 하는데에 그 理由가 있다 하겠다.

居住地域에 따라서도 公園綠地의 價值는 差異가 있었다 ($P < 0.01$). 東·北·壽成區의 경우는 자연 경치를 즐기기 위해, 中·西·南·達西區에 거주하는 大邱市民은 맑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 公園綠地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도 맑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 公園綠地를 이용하는 市民이 가장 많았고 親交를 위해 公園綠地를 利用하는 市民이 가장 적었다.

[表 5] 職業에 따른 公園綠地의 價值

N=442 (단위: 명)

	정신노동적*	육체노동적**	주부	전공학생	비전공학생	무직
맑은공기	38(44.2)	18(30.5)	30(27.3)	2(8.7)	13(8.4)	5(50.0)
자연경치	14(16.3)	11(18.6)	32(29.1)	4(17.4)	37(24.0)	4(40.0)
해방감	10(11.6)	14(23.7)	19(17.3)	11(47.8)	45(29.2)	1(10.0)
놀이·운동	7(8.1)	2(3.4)	9(8.2)		9(5.8)	
친교	2(2.3)	2(3.4)	2(1.8)	2(8.7)	16(10.4)	
조용한곳	10(11.6)	6(10.2)	7(6.4)	4(17.4)	33(21.4)	
어린이교육	5(5.8)	6(10.2)	11(10.0)		1(0.6)	

$$X^2=104.3 \quad D.F.=30 \quad \text{Significance}=.0000$$

* 自營業, 公務員, 專門職(教授, 研究員, 醫師, 藥師, 文學, 藝術人 등), 教師, 會社員.

** 精神勞動職 외의 職業.

[表 6] 居住地域에 따른 公園綠地의 價值

N=442 (단위: 명)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맑은공기	24(33.3)	8(17.4)	19(25.7)	21(36.2)	26(23.2)	15(18.5)	15(34.1)
자연경치	13(18.1)	16(34.8)	10(13.5)	11(19.0)	32(28.6)	24(29.6)	8(18.2)
해방감	11(15.3)	8(17.4)	18(34.3)	12(20.7)	27(24.1)	17(21.0)	9(20.5)
놀이·운동	6(8.3)	5(10.9)	2(2.7)	2(3.4)	5(4.5)	3(3.7)	4(9.1)
친교	1(1.4)	2(4.3)	5(6.8)	5(8.6)	7(6.3)	3(3.7)	1(2.3)
조용한곳	9(12.5)	2(4.3)	17(23.0)	5(8.6)	9(8.0)	18(22.2)	5(11.4)
어린이교육	8(11.1)	5(10.9)	3(4.1)	2(3.4)	6(5.4)	1(1.2)	2(4.5)

 $X^2=58.7$ D.F.=36 Significance=.0098

[表 7] 教育水準에 따른 公園綠地의 價值

N=442 (단위: 명)

	국졸	중졸	고졸(고3포함)	대재이상
맑은공기	4(44.4)	24(45.3)	46(20.4)	54(26.5)
자연경치	3(33.3)	11(20.8)	57(25.2)	45(22.1)
해방감	2(22.2)	5(9.4)	49(21.7)	48(23.5)
놀이·운동		6(11.3)	14(6.2)	8(3.9)
친교		1(1.9)	12(5.3)	11(5.4)
조용한곳		2(3.8)	35(15.5)	29(14.2)
어린이교육		4(7.5)	13(5.8)	9(4.4)

 $X^2=30.1$ D.F.=18 Significance=.0975

教育水準에 있어서 大在이상의 學歷을 가진 도시민의 경우는 맑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 주로 公園綠地를 이용하고 있으며 高卒(高3在學生 포함)의 경우는 景致를 감상하기 위해 公園綠地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全體的으로도 職業·居住地域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맑은공기를 마시기 위해 가장 높게, 親交를 위해서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教育水準에 따른 公園綠地의 價值도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p<0.1$).

IV. 結論

大都市에 있어서 公園綠地의 役割을 究明하기 위해 현재 大都市 公園綠地計劃에 있어서 基本으로 하고 있는 位階性의 妥當性 與否와 變化하는 公園

綠地에 대한 價值를 大邱市民을 對象으로 조사한本研究는 다음과 같은 結果를 얻었다.

都市民들은 自然的인 要素가 많은 都市 自然公園 뿐만아니라 日常生活에서 쉽게 利用할 수 있는 公園綠地 즉, 대학캠퍼스, 동네빈터, 소운동공원, 약수터, 어린이 놀이터를 選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大規模의 公園綠地보다는 小規模일지라도 공원녹지의 主 利用者인 都市民들이 階層이나 利用行爲에 있어서 구애됨이 없이 居住地附近에서 接近이 쉬운 곳에 작은공지나 학교 혹은 公共建物이 移轉 한 장소에 公園綠地가 設置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고 大邱市民은 앞산, 頭流, 達成, 망우 그리고 中央公園등과 같은 都市 計劃施設로서 市當局에 의해 管理·運營되는 市民들에게 비교적 알려진 곳 뿐만 아니라 널리 알려진 곳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그들의 日常生活에서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으며 親近感을 느끼는 곳, 예를 들면 중리여중, 매지골약수터, 갓바위, 방천, 건물 주변의 조경녹지, 범어 뒷산, 도청옆 잔디밭, 대봉교 부근, 건들바위, 오봉산 등도 公園綠地의 중요한 요소로서 認知하고 있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都市民은 그들의 日常生活에서 比較的 親近感을 느끼거나 親熟한 곳을 그들의 레저와 레크리에이션 活動을 위해 利用하고 있었다. 이러한 都市民의 意見은 지금까지 公園綠地政策의 基準이 되어온 公원녹지의 面積과 距離가 增加함에 따라 公園綠地가 多樣한 機能을 修行하며, 같은 條件을 가진 모든 公園綠地는 都市民에게 같은 質의 慰樂機能을 提供하고, 도시내의 모든 地域에서 同等한 利用條件를 준다는 位階性과는 差異

가 있음이 밝혀졌다.

公園綠地의 가치 즉, 自然景致를 즐기는 것과 같이 自然과 직접 접하면서 自然과 同化되고 싶어 公園綠地를 利用하는것, 맑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 解放感을 느끼기 위해, 조용한 곳을 찾아서 등과 같이 複雜한 社會生活에서 벗어나고픈 人間의 心理的欲望에서 公園綠地를 利用하는 것 그리고 놀이나 運動, 親交 그리고 어린이 교육 등과 같이 레크리에이션 또는 社會的 目的으로 公園綠地를 利用하는 것들은 도시민의 직업, 거주지역 그리고 교육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공원녹지의 가치를 레크리에이션과 社會的 目的에 두고 있기 보다는 주로 都市의 日常生活에서 벗어나 心理的欲望을 느낄 수 있는 場所로서 公園綠地를 주로 利用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대구시민들의 公園綠地에 대한 價值는 公園綠地가 都市民을 위한 여러 가지의 레크리에이션 機能을 擔當해야 한다는 GLC(Greater London Council)의 公園綠地 政策 擔當者들의 主張보다는 公園綠地가 都市속의 自然으로서 役割을 遂行해야 한다는 環境論者들의 主張과 外面上으로는一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의 研究 結果에 의하면 그동안 公園綠地 計劃의 根幹이 되어온 位階性의 原則은 都市民의 意見과는 많은 差異가 있음이 밝혀져 도시민의 의견에 맞는 새로운 공원녹지 계획의 理論의樹立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公園綠地가 都市民을 위한 都市속의 自然으로서 그 役割 뿐만이 아니라 公共財로서 地域共同體의 場으로서의 役割도 並行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調查方法으로 採擇한 設問紙에 의한 計量的인 社會調查方法은 都市民의 感情이나 價值 즉 그들이 公園綠地에 대해 무엇을 느끼고 생각하는지를 충분히 把握하기에는 不適合한 方法이라 생각되어 都市民의 公園綠地에 대한 態度와 價值를 把握하기에 適合한 方法이라고 생각되는 定性方法에 基礎를 둔 새로운 方法論의 摸索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參考文獻

- Alexander, C., Ishikawa, S., & Silverstein, M. (1977) A Pattern Language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Balmer, K. R. (1972) Urban Open Space Planning in England and Wales Unpublished Ph. D Thesis University of Liverpool.
- Beer, A. R. (1990) Environmental Planning for Site Development London : E. & F N. Spon.
- Cooper-Marcus, C. & Francis C. (1990) People Places : Design Guidelines for Urban Open Spaces New York : Van Nostrand Reinhold.
- Doxiadis, C. A. (1975) Anthropopolis : City for Human Development New York : W W. Norton & Company.
- Eckbo, G. (1969) The Landscape We See New York : McGraw-Hill.
- Foresta, R. A. (1980) Elite Values, Popular Values, and Open Space Policy APA Journal Vol. 46 No. 4 449-456.
- Francis, M. (1987) Urban Open Spaces In Zube, E. H. & Moore, G. T. (Ed.) Advances in Environment, Behavior, and Design Vol. 1 London:Plenum Press.
- GLC(1986) Open Space in London GLC Department of Recreation and Arts:Habitat Handbook No. 2.
- Garabet, L. H. (1982) Open Space Provision in Iraq with Special Reference to Baghdad Unpublished Ph. D Thesis The University of Sheffield.
- Gilbert, O. L. (1989) The Ecology of Urban Habitats London : Champman and Hall.
- Gold, S. M. (1980) Recreation Planning and Development New York : McGraw-Hill.
- Hough, M. (1989) City Form and Natural Process: Towards a New Urban Vernacular London : Routledge.
- Jacobs, J. (1961)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 The Failure of Town Planning New York:Penguin Books.

15. Laurie, I. C.(1979) Nature in Cities Chichester:John Wiley & Sons.
16. Laurie, I. C.(1985) Public Parks and Space In Harvey, S. & Rettig S. (Ed.) Fifty Years of Landscape Design : 1934-84 London:The Landscape Press.
17. Little C. E.(1968) Challenge of the Land : Open Space Preservation at the Local Level London : Pergamon Press.
18. Lynch, K.(1981) A Theory of Good City Form London : MIT Press.
19. McHarg, I.(1971) Design with Nature New York : Natural History Press.
20. Michert, J.(1983) On the Desire for "Wilderness" in Urban Open Spaces Garten + Landschaft Oct. 771-776.
21. Morris, E. K.(1979) Changing Concept of Local Open Space in Inner Urban Areas Unpublished Ph. D Thesis University of Edinburgh Scotland.
22. Nohl, W.(1985) Open Space in Cities : Inventing a New Esthetic Landscape Vol. 28 No. 2 35-40.
23. Platt, R. H.(1972) The Open Space Decision Process : Spatial Allocation of Costs and Benefits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4. Sprin, A. W.(1984) The Granite Garden : Urban Nature and Human Design New York : Basic Books.
25. Tankel, S.(1963) The Importance of Open Space in the Urban Pattern In Wingo, L. Jr.(Ed.) Cities and Space : The Future Use of Urban Space Baltimore:Johns Hopkins Press.
26. Tunnard C. & Pushkarev, B.(1963) Man Made America : Chaos or Control ? London : Yale University Press.
27. van Rooden F. C. Greenspace in Cities In Grove, A. B. & Cresswell, R. W. (Ed.) City Landscape London : Butterworths.
28. Whitaker, B. & Browne K.(1971) Parks for People New York:Winchester Press.
29. Winning, A. L.(1986) Management of Urban Parks In Bradshaw, A. D., Goode, D. A. and Thorpe, E.(Eds.) Ecology and Design in Landscape 24th Symposium of the British Ecological Society Oxford : Blackwell 261-274.
30. Wohlwill, J. F. (1983) The Concept of Nature : A Psychologist's View In Altman, I. & Wohlwill, J. F.(Ed.) Behavior and the Natural Environment London:Plenum.